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http://www.emerics.org/ 2018. 09. 10. 중남미	「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극복위해 긴축정책 발표 작성 EMERiCs 감수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 폐소화 급락으로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하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긴축 정책을 발표함.

□ 아르헨티나가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금 인상과 정부 부채 축소 등의 초강력 긴축 정책을 발표했음.

- 지난 9월 3일,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수입 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비상 긴축정책을 발표했음.
- 페소(Peso)화 가치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마크리 대통령은 “긴축 조치가 필요한 경제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고 밝힘.
- 마크리 대통령은 국내 통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긴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는 또 다른 위기가 아니라 마지막 위기가 되어야 한다,” 며 경제 위기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함.
- 마크리 대통령은 긴축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 수출품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현재 19개인 정부 부처를 10개 이상 줄이기로 했다고 밝힘.
- 농업 수출품에는 달러당 4페소, 가공 제품에는 달러당 3페소의 세금이 각각 부과될 예정임.
- 마크리 대통령은 “이게 나쁜 세금이고 우리가 가려는 방향과 다르다는 걸 알고 있지만, 현재 국가 경제가 비상사태이다” 라며, “세금은 경제가 안정화되면 폐지할 것,” 이라고 설명함.
- 니콜라스 두호브네(Nicolas Dujovne) 재무부 장관은 이번 긴축 정책으로 2020년까지 정부가 GDP의 1%에 달하는 재정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함.

□ 현재 아르헨티나는 폐소화의 급락으로 금융 위기에 직면해 있음.

- 아르헨티나의 긴축 정책 발표 전 주에는 폐소화가 미국 달러화 대비 16%나 떨어지면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 50% 가량 하락했음.
- 아르헨티나는 폐소화 급락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긴축 정책을 발표했지만, 발표 후 당일에도 4% 이상 떨어졌음. 일부 경제학자들은 당분간 폐소화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함.
- 지난 8월 30일에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45%에서 60%까지 인상하는 긴급 처방을 내렸으나 폐소 하락을 막지 못했음.
- 한편, 인플레이션과 빈곤율이 3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마크리 대통령은 “정부는 아동복지 등과 같은 일부 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밝힘.

- 아르헨티나는 IMF에 구제금융 조기지원을 요청했으며 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의 지지도 이어져 구제금융 조기지원에 탄력을 받고 있음.

□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 조기지원을 요청함.

- 지난 9월 4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와 구제금융 조기지원 협상에 나섰으며 동 회담은 5일 까지 이어졌음.
- 니콜라스 두호브네 아르헨티나 재무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IMF 총재와 만나 구제금융 조기 집행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음.
- 두호브네 재무장관은 “지난 6월 IMF 이사회와 합의한 500억 달러의 금융 지원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9월 중순에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 고 밝힘. 두호브네 재무장관은 양 측이 여전히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한편, 라가르드 IMF 총재는 아르헨티나의 IMF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당국과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힘.
- 라가르드 총재는 “이번 회의에서 진전을 이뤘으며 우리는 IMF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 이라며, “우리의 논의는 기술적 수준에서 계속될 것이고 우리의 공동 목표는 IMF 이사회에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한 빠른 결론을 도출하는 것,” 이라고 강조함.
- 지난 9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아르헨티나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IMF와의 협상을 지지함.
-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리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한 신뢰가 있다” 며,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아르헨티나의 통화 및 재정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IMF와의 협상을 강력히 지지한다,” 고 밝힘.
- 아르헨티나는 지난 6월 IMF와 500억 달러의 대기성 차관 방식으로 지원받기로 합의했으며 150억 달러는 즉시 지원받았고 나머지 350억 달러는 분기별로 지원받는 방식이나 급격한 경제 위기로 조기 지원을 요청함. **EMERiCs**

참고자료

- Reuters, Trump says U.S. supports Argentina, backs its efforts with IMF, 2018. 09. 05
 Reuters, Crisis-hit Argentina hopes for improved IMF deal this month, 2018. 09. 04
 Standard Media, Argentina's president announces new austerity measures, 2018. 09. 04
 The Guardian, Argentina launches fresh austerity measures to stem peso crisis, 2018. 09. 03
 Reuters, Argentina unveils 'emergency' austerity measures, grain export taxes, 2018. 09. 03
 Reuters, Argentina IMF deal could mean reversal of Macri's grain tax cuts, 2018. 09. 03